



5면
2019 문해교육 이수자
초등학력 인정서 수여식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음 2월 1일) 제248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통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총력

도지사 주재 도내
시장·군수와 영상회의

확인된 동선 해당 시설
1일 2회 정도 소독 철저
접촉자 전담인력 지정 등
송 지사, 도내 시·군에
매뉴얼 이상 방역" 당부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1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 가진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 시장, 군수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도내 시장·군수와 코로나19 대책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시군에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영상회의를 통해 "전북도에서 2월 7일부터 9일까지 대구를 여행한 사람이 오후 5시 40분에 113번째 확진 환자로 판정됐으며,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 중이다"며, "현재 상황이 매우 긴박하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해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에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대구, 경북의 사례처럼 광범위한 지역사회

확산이라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께서는 매뉴얼 이상으로 철저한 방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영상회의에서는 현재 중앙과 도의 현장대응팀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출입지역에 대해서 해당 시군이 소독을 실시 중이며, 환자 동선과 접촉자 분류를 하고 있다는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도는 시군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도 당부했다. 먼저, 확인된 동선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1일 2회 정도 소독을 철저히 하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1:1전담 인력을 지정해 확실한 자기격리와 매일 1회 이상 발열 체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접촉자가 방문한 시설은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면역력이 낮은 어르신이나 찾은 경로당 시설은 폐쇄 권고하는 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지난 1월 31일 도내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철저한 방역과 지원활동으로 지역 내 확산을 막은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다"며 "도의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범위 전주전역으로 확대

전주시, 전북도내 확진환자 발생 따라
24시간 비상체계 유지·추가 동선 파악

전주시가 지역 내 직장을 다니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 뿐만 아니라 전주전역으로 방역범위를 넓혀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적인 재난사태에 처한 상황"이라며 "전주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범위를 전주전역으로 확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지역사회, 인접 자치단체, 중앙정부와 함께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확진자와 접촉자의 주요 동선을 파악해 질병관리본부, 전북도와 함께 모두 공개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들의 주요 동선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은 물론 경북·대구-전주간 버스 소독은 물론 공공기관 청사, 체육시설, 공원 등에 대한 소독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시는 또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자기격리 확대에 대비해 교육을 실시한 공무원 10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투입해 집중적인 관리에 나서고, 200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일 유선연락과 방역, 호흡기 감염여부 점검 등 1대1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이 찾는 1차 진료기관인 동의의원과 선별진료소 등에서 진료 거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진료거부 신고센터를 통해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동시에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음압병상과 의료진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 개강시기에 맞춰 중

국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대학과 협조해 공항에서부터 숙소에 이르기까지 인솔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앞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환자의 직장 건물과 주변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주변 보육시설, 경로당, 도서관, 수영장 등 각종 시설을 휴관 조치한 상태다. 나아가 환자와 접촉자의 직장 건물, 방문시설은 물론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환자의 가족과 접촉자에 대한 격리조치와 동시에 검체 검사를 진행 중이며, 환자 직장 건물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다.

이와 관련 시는 기침을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에 앞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먼저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줄 것으로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우리 공직 사회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강한 신념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대구여행을 다녀온 김제 거주자 A씨(28)는 기침, 가래 증상을 보이자 덕진진료실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환자로 판정됐다. A씨는 서신동에 위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주완주지사 건물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어, 전북도내 두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의 직장동료도 '양성' 판정을 받아 21일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월31일 8번째 환자 발생 이후 3명으로 늘었다. /김윤상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격 조건
편집기자(경력·신입)	본사 0명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취재기자(경력·신입)	본사 0명	위와 동일

- ▶ 접수기간: 2020년 3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김양원 전주시장이 지난 21일 전주시 조촌동 일대로 지역 농업경제를 담당하는 농업부서를 포함한 제2 공동청사의 이전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전주 제2공동청사, 조촌동 이전

농업기술센터 4개과 등
항공대대 인접 부지로

전주시 조촌동 일대로 지역 농업경제를 담당하는 농업부서를 포함한 제2 공동청사가 이전된다.

시는 조촌동의 현 항공대대 동남편 부지에 농업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농업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농업부서와 관련기관 등이 근무하는 제2 공동청사를 신축, 이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2 공동청사는 총 7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기본계획 용역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2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제2 공동청사는 총 420여명이 상시 근무하고, 청사를 찾는 유동인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상 기자



제2청사 신축과 함께 이전하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4개과(박거리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동물복지과)와 맑은물사업본부의 4개과(수도행정과, 급수과, 수질관리과, 하수과) 그리고 전주푸드통합센터 등이다.

시는 또 송천동의 전주대대를 조촌동의 항공대대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전주대대 이전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유플러스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